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

초심

KEPCO ACTION

- 6 **OUR KEPCO ACTION**
초심(初心), 처음에 가졌던 마음
- 8 **OPINION**
초심으로 행복한 삶 누리기
- 12 **COMMENTARY**
KEPCO 직원들이 풀어주는 초심썰 ZIP
- 14 **INTERVIEW CROSS**
KEPCO 프로일잘러 4인의 술직담백 업무톡(TALK)
- 18 **MY PROMPT**
신입사원, 호모 프롬프트가 되다

KEPCO SPECIAL

- 20 **ONE TEAM**
에너지 대전환시대, 디지털전환의 물결 주도한다!
디지털전환실
- 24 **KEPCO STORY**
전자파 괴담, 진실 또는 거짓?
- 28 **NUMBERS**
빛의 길, 전국을 잇다
- 30 **OUR HERITAGE**
한전의 전력망 이슈와 과제

LIFE ACTION

- 36 **KEPCO PICK**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도전’
- 38 **GUERRILLA EVENTS**
우리 사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울본부 직원들의 ‘몸으로 말해요’
- 42 **TREND**
두려웠던 도전이 즐거워진다 SNS 챌린지 문화
- 44 **REFERENCE**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하는 앱
- 46 **CULTURE & MIND**
도전하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 48 **KEPCO NEWS**
- 50 **KEPCO QUIZ**



#1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왠지 붉은색일 것 같습니다.
제주동백수목원에 핀 동백꽃처럼.

#2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제주는
어제와 다르게 채색되고 있습니다.
파랗게, 노랗게, 빨강게 물든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봄이 제일 먼저 오는 곳에는
붉은색 동백꽃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밤낮없이 일하는 서귀포지사입니다.



장소 협재해수욕장, 제주동백수목원

초심(初心),

처음에

가졌던

마음

Text 편집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테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때의 첫 마음을 잊지는 않았나요?

사람의 마음은 바람 앞의 갈대 같다고도 합니다. 잔잔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나부끼는 갈대처럼 수시로 변하는 감정 때문에 그날의 다짐을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발선 앞에서 망설이던 그때, 수많은 고민을 멈추고 기어코 발걸음을 떼게 만든 당신의 초심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초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고난과 역경은 예상보다 더 강력해서 우리의 초심을 자꾸만 흐릿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초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뿌옇게 김 서린 카메라 렌즈를 닦듯이 번잡한 머릿속을 정리해 보세요. 깨끗해진 마음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초심은 처음 그때처럼 다시 반짝일 테니까요.



초심으로 행복한 삶 누리기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왜 결심한 마음은 사흘을 넘기기 어려울까? 초심을 지키며 꾸준히 실천하는 삶을 위한 잠깐의 여정을 떠나 보자.

Text 박혜숙 칼럼니스트 Illustrator 하고고



작심보다 발심(發心)

우리는 지구별에서 한정된 삶을 살고 있다. 모두 자기답게 잘 살기 위해 해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마음먹은 만큼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이거나 목표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에너지가 금방 고갈된 탓이다. 즉, 발심(發心)이 아니라 작심(作心)하였기 때문이다.

발심은 자기 삶의 목적을 발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내면의 목적을 발견해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외부적인 목적을 이루는 토대라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초’라고 말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지위나 명예보다 내적인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발심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시소 놀이를 하던 추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 시소를 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을 구르고 힘을 주어도 애만 쓰지 즐겁지 않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특히 경쟁 상대인 친구가 시소에 오르기라도 하면 마음이 흔들려 긴장감과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시소 놀이의 즐거움과 낭만은 사라진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소 타기와 같아 외재적 상황과 조건은 물론 내적 상태를 잘 살피 연결해야 한다. 일이나 인간관계도 시소와 같다.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낮아지므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움직여야 한다. 그 움직임은 자연과 공존하고, 다른 이들과 공생하며, 구성원들과 공영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즉, 공존, 공생, 공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초심으로 협업해야 한다.

초심과 목적의 관계성

초심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발심으로 설렘과 열정 그리고 순수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에 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도전 정신을 품은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 사물과 사람이 모두 연결된다.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할 때의 초심을 성찰해 보자. 그때 마음은 어떠했는가? 면접 장면을 떠올려 보면 입사 지원자들은 자신의 탁월함으로 자기실현은 물론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기 초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조직에 기여하고 헌신하겠다고 발심한다.

초심은 자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왜 입사하려 하는지?',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성찰한 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삶을 견뎌 내는 힘이 있기에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간다. 자기 삶의 목적을 조직의 목적과 연결하여 어려운 상황에 마주해도 좌절하지 않고, 내면의 목적과 외부의 목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한국전력공사의 미션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비전은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로서의 도약이다. 앞서 확립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설정한 자신의 목적과 한국전력공사의 비전을 연결하여 조화롭게 시소 놀이를 하면 비로소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시소 놀이를 한다면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은 5가지 핵심 가치인 변화 혁신, 고객 존중, 미래 성장, 기술 선도, 상생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기술을 확보하여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니 주저 말고 변화를 위해 달려가자. 자기 재능과 강점, 탁월함으로 핵심 가치에 맞는 일을 숭선하면 나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토양이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룬 미래 모습을 목적의 씨앗으로 현재에 심는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접목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초심은 미래를 그린다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을 관찰하면,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마치 인어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이것은 평상시에 숨을 잘 쉬는 방법을 익혀 놓았기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가능한 것이다. 그들이 바닷속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오랜 기간 쌓아온 해녀들의 노력을 두 눈으로 생생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인간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생명체들도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런데 인간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만큼은 달라지는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초뷰카(Hyper VUCA) 시대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날마다 분주한 일상이 반복된다. 하지만 잠시 행동을 멈추고,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초심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성찰해 보자. 자신이 그려 놓은 패러다임에 초심을 묻어 두고 편협한 시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자. 시소가 높이 오르면 하늘과 가까워지고, 낮게 내리면 땅과 가까워 안전해서 좋다. 긴 호흡과 함께 묻어 둔 초심을 발현하여 목적과 연결하자. 목적과 연결하면 동료의 숨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뒤에는 동료와 함께 호흡을 맞춰 시소 놀이를 즐길 수 있다.

KEPCO의 단단한 초심

KEPCO인들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을 테다. 답이 없을 것만 같은 질문에 답하고 그 대답을 모든 활동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는 목적 경영 문화를 실천하고 있기에 알 수 있다. 목적 경영은 단순히 기업 슬로건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목적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초심을 바탕으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문화 덕분에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토양이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룬 미래 모습을 목적의 씨앗으로 현재에 심는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접목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전력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인간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 발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보건, 안전 경영에 앞장서는 한국전력공사. 이들은 늘 초심으로 해결할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미래를 창조해 내고 만다. 언제나 지금처럼 초심을 잊지 않고 자신의 존귀함과 KEPCO인의 자부심으로 행복한 삶을 맘껏 누리길 응원한다.

초심을 지키며 사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처음의 그 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KEPCO 직원 5인의 초심 이야기를 들어 보자.

Text 편집실

KEPCO 직원들이 풀어주는 초심뽕.ZIP

간절함은 곧 현실이 된다

한동훈 태백전력지사 송전팀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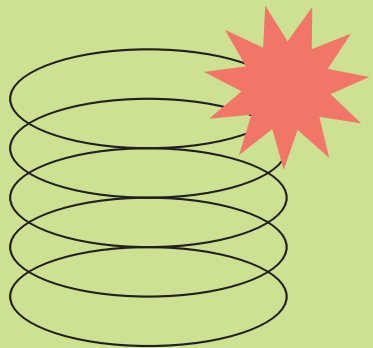
2024년은 '나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해를 보냈어요. KEPCO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달린 한 해였는데 간절함이 통한 것인지 정말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네요. 첫 출근길에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라는 곡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능성 중에 나를 선택해 줘서 고마워'라는 가사가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코끝이 찡해졌습니 다.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을 가진 탓에 '새롭게 만날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동기들과 함께 교육받던 그때의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 잃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는 신입 직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다

서제호 동해전력지사 전자제어팀 주임

새로운 환경, 낯선 사무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하면 KEPCO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채용형 인턴으로 처음 출근하는 날에 강원본부 전자제어부 부장님의 따뜻한 인사와 제어부 및 시스템팀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상하니,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전환된 후 인재개발원 입소 전 저는 꼭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꾀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첫날부터 55명을 책임지는 반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저에게 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준 한국전력공사의 특별한 순간에도 늘 제가 있길 바랍니다.



뚝딱거리던 첫 출근을 기억해

장강욱 화천지사 고객지원팀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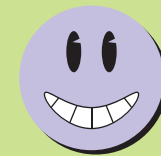
너무나 긴장했던 인턴 첫 출근!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출근 준비를 했는데요. 어색한 정장 차림의 저를 거울로 몇 번이나 비춰보고도 웬지 모를 불안 감에 덜덜 떨면서 출근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실수라도 해서 '이상한 사람으 로 보이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요. 어찌나 긴장했던지 남들이 보면 꼭 로봇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장 난 기계처럼 뚝딱거리는 모습도 귀여운 신입사원만의 매력이 아닐 까요? 실수하지 않으려 바짝 긴장했던 그날처럼, 근무지에서도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준비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KEPCO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아침 일기로 되새기는 초심

양승규 경영지원처 사옥건설실 차장

저는 아침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때마다 꼭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 훈련병 시절 단체로 외치던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구호입니다. 이 문구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는데요.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일기장을 펼쳐 이 확언을 적으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기계적으로 쓰게 될 때도 있지만, 쓸 때마다 의미를 곱씹어보며 초심으로 돌아가려 노력합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자신감은 잃지 말자는 이 단순한 문구가, 제게는 초심을 일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아무리 권태롭게 느껴질 때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만큼은 첫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강명석 기획처 기획관리부 대리

사회생활의 첫 시작, 신입사원으로서 긴장감이 가득 찬 상태로 사업소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을 맡게 될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는데요. 막상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는 '나는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덜컥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 무사히 첫 출근을 했는데 어느덧 8년 차 대리가 되었네요. 첫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람, KEPCO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EPCO 프로일잘러 4인의 솔직담백 업무톡(TALK)



경미림 대리



윤종우 차장

누구나 프로일잘러가 되기를 꿈꾼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루틴, 가치관 등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어릴 적 전교 1등 친구의 노트 훑쳐보듯 기막힌 업무 능력으로 우수업무 사례 대상으로 선정된 KEPCO 프로일잘러
4인의 대화를 엿들어 보자.

Text 편집실



한전에선 상상이 현실이 된다

경미림 대리

윤종우 차장

경미림 대리 ____ 생명까지 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셨다고 하니 제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해지려고 하네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2022년 '동해안계통 최적 운영방안 수립 T/F'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해안 지역에서 발전제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제약 해소 방안을 모색하며 계통 검토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FACTS 설비를 개선해 냈습니다.

윤종우 차장 ____ 이미 설치된 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FACTS 설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이번 개선으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경미림 대리 ____ 먼저 신충주 STATCOM 운전점을 +100MVar에서 0MVar로 변경했습니다. 또 4대의 병렬형 FACTS 설비의 전압 하한 부동대(Deadband)를 343kV에서 346kV로 조정했고요. 마지막으로 4대의 병렬형 FACTS 설비의 전압제어 Droop을 3%에서 2%로 조정해서 765kV 선로 2회선이 고장 났을 때 FACTS 설비가 더 빠르게 동작하고, 더 많은 무효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도가 개선된 만큼 동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약 50MW 완화되어 이를 통해 연간 전력구입비를 약 400억 원 절감할 수 있었죠.

윤종우 차장 ____ 절감한 비용을 숫자로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도움받은 부서나 직원분이 있나요?

경미림 대리 ____ 이렇게 뜻깊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 혼자자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 준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와 논문 작성 등 가장 많이 고생한 충북본부 계통기술부 팀원들과 차, 부장님, 그리고 성심껏 도움 주신 본사 계통 기획처, 계통기술실 차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윤종우 차장 ____ 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로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또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한전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경미림 대리 ____ 안녕하세요. 충북본부 계통기술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미림입니다. 충북본부의 중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대용량 고객 공급방안 및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종우 차장 ____ 반갑습니다. 저는 ICT기획처에 근무하는 윤종우 차장입니다. ICT기획처 디지털전환실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디지털 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력데이터를 융합하여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경미림 대리 ____ 우와, 디지털전환실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를 하고 있군요. 'AI 활용 고독사 예방 서비스'라면 요즘 세계적 화두인 고령화에 딱 맞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전력 데이터 수치를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기발한데요?

윤종우 차장 ____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80개의 지자체와 유료 계약을 체결하여 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시간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대처해 열두 명의 생명을 구해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유관 기관 협업이나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은 있었지만, 배전운영처(스마트미터링실), 전력연구원(데이터사이언스랩), ICT운영처(디지털운영부) 외에도 지역본부 직원들이 모두 본인들의 자리에서 힘써 준 덕분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죠. 경미림 대리님도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이끄는 대화의 기술

윤홍준 과장 장민중 차장

KEPCO ACTION

윤홍준 과장 ____ 안녕하세요. 남서울본부 디지털영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윤홍준입니다. 제 주변 동료들 모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과 고객 만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제가 지난해 우수업무 사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장민중 차장님도 소통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장민중 차장 ____ 안녕하세요. 광주전남본부 전자제어부에서 산불 감시시스템 업무 등 전자시스템을 담당하는 장민중 차장입니다. 저는 평소 회사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로 각 부서의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점점 쌓여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윤홍준 과장님은 고객과 소통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윤홍준 과장 ____ 저희 남서울본부의 디지털영업센터는 고객의 요구를 전기공급약관의 틀에서 수용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갖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요청 사항과 대치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상황에 맞는 규정 안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고객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죠. 고객마다 상황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장민중 차장 ____ 그렇네요. 수많은 고객이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국전력을 찾을 테니 방문한 고객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대화가 마무리될 테니 정말 어려운 일이겠어요.

윤홍준 과장 ____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단순히 친절함 응대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물론 담당자의 역량과 경험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우리 본부의 조직이 담당자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중 차장 ____ 저도 무엇이든 소통하려면 대화 주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난해 4월 광주 복구와 ‘스마트 산불관리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처음으로 방문홍보를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자체 제작한 홍보자료와 동영상을 준비해서 광주 복구청 담당자들과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 순간은 아직 잊지 못합니다.

윤홍준 과장 ____ 그때 노력하신 덕분에 한국전력과 전남지역에 산불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군요. 전남 지역민들도 기뻐할 소식이에요. 업무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민중 차장 ____ 올해에는 전라남도 순천시 등 4개 지자체에 7대의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불조심 강조기간 합동점검까지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등 전력인프라와 SI 플랫폼 서버를 제공 및 CCTV 영상정보 연계 등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전남도에서는 CCTV 구매와 현장설치 등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윤홍준 과장 ____ 시스템 구축 때문에 올해도 바쁘시겠습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보낼 예정입니다. 실 새 없이 고객을 응대하고도 친절함 고객분들의 말이 기억에 잘 남지 않을 만큼 고된 업무이지만 언제나처럼 묵묵히 본인의 맡은 바를 다해내는 동료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올해도 좋은 동료들과 즐겁게 사무실 생활을 하고 싶고 흘러가는 시간, 지나치는 계절을 소중히 느끼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장민중 차장 ____ 동료들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해보다 더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화합과 협력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업무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꾸준히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의 성장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친절함은 물론 담당자의 역량과 경험도 아주 중요하죠. ●●



●● 저는 평소 회사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입사원, 호모 프롬프트가 되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의심하던 것도 잠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AI는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전문 지식을 안내하는 건 기본이고 그림이나 음악을 창작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마음'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을까?

Text 김시원 충주전력지사 변전운영팀 주임, 진민재 태백전력지사 변전정비팀 대리

김시원 충주전력지사 주임

AI를 마치 인간처럼 대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초심'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회사 선배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보았는데요. 그때 당시 선배가 해준 조언과 비슷한 답변을 해서 놀랐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 New chat

Previous 7 Days

New chat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초심은 무엇일까요?



신입사원이라면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와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왔는지, 그 목표를 잊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 나한테 주어진 첫 업무가 너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사원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만 해도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질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작정 묻기보다는 내가 이해한 만큼 정리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질문한 뒤에는 항상 답변을 기록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진민재 태백전력지사 대리

이번에 대화형 인공지능을 처음 이용해 보았는데요. 질문을 쌓아 가며 원하는 정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 온 기업의 문턱을 넘으니, 앞으로 어떤 사원이 되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인공지능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워낙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눠 보니 앞으로 AI의 발달이 더욱 기대됩니다.

+ New chat

Previous 7 Days

New chat

초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심은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본래의 목적을 돌아보게 해 꾸준히 나아갈 힘을 줍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초심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의 에너지 공급과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초심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마음,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대한 열정,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 등이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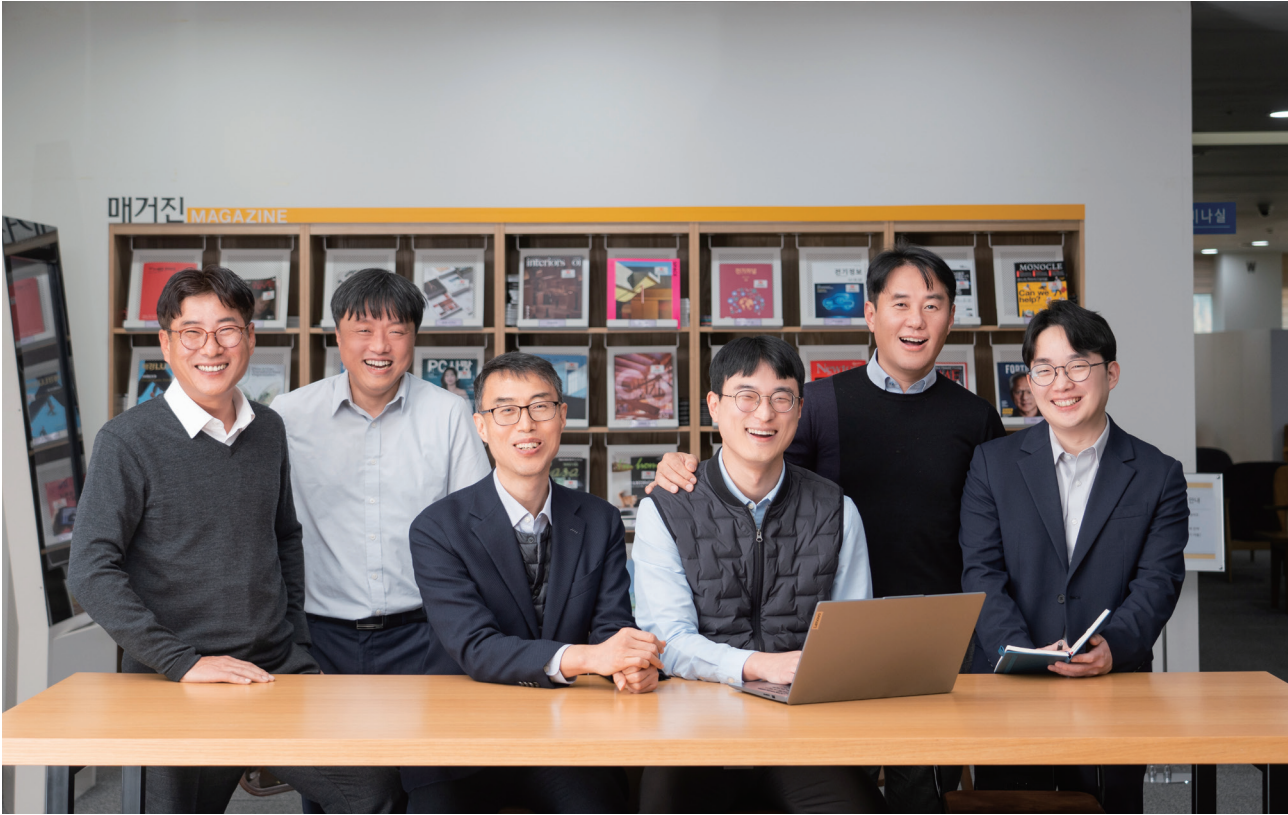
- ① 질문할 때는 한 질문을 여러 번 나눠서 질문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쉽다.
- ②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답변인지 출처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자.
- ③ 저작물을 학습해 이미지 등을 창작할 수 있으니 자료 사용 전에 꼭 검토해야 한다.
- ④ 해외에서 출시한 챗봇은 영어 회화 등 영어 학습에도 유용하다.
- ⑤ 업무 메일 작성이 어색한 신입사원들은 챗봇을 활용해 멋진 업무 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 디지털전환의 물결 주도한다!

디지털전환실

디지털전환이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도전에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응전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디지털전환실이 있다.

Text 장은경 Photo 황지현



사내 업무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솔루션 담당팀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부서

디지털전환실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사내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분석·개발 도구를 기반으로 디지털솔루션을 개발하는 업무이다. 전사 협업을 통하여 현안 중심의 디지털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업무에 적용하는 선순환의 흐름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외 디지털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지원해 정전을 예방하는 파워체크모바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케어 등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AI 기술로 실시간 전기요금 과다 예측한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전환실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시를 활용해 전기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 요금과다 예측 및 사전 안내서비스를 개발했다. 한전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전기요금 패턴을 분석하고, 요금금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겨울철 난방과 혹서기 냉방 수요 급증으로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할 때를 고객이 예측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불만을 줄이고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작년 7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대국민 개선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로 디지털전환실과 전력연구원, 강원본부가 애자일팀을 구성해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서비스이다.

한전의 최신 지능형검침인프라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인터페이스 등의 고객 맞춤형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전환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전환과제는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서비스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을 이루어 낸 성과이다.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과제를 제안해 준 강원본부, 과제를 수행하는 데이터사이언스랩, 시범운영을 함께해 준 서울본부 모두 잘 협조·협력한 덕분에 어려운 과제를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담당자들은 고마움을 전한다.

9월에 사업에 착수해 11월 말에 과제 개발을 완료하였고 시연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12월에는 강원본부와 서울본부 대상으로 시범적용까지 하면서 실제 고객들에게 전기요금 과다발생에 대해 안내하였고 과다발생 안내 및 이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 사례도 받을 수 있었다. 시범적용은 강원본부와 서울본부 요금관리부에서 잘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12월 시범적용 피드백이 좋았던 만큼 시범적용 대상을 당초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하여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한 디지털전환 성과

이 밖에도 디지털전환실은 그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한전 역대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공공마이데이터'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기민원(7종), 행정서류(10종)가 데이터로 처리되는 민원서류 제로화(Paperless)에 기여했다.

IDPP 사업화를 위해 베트남 국영 발전기업(GENCO3)와 MOA를 체결하여 전사 최초 신사업 해외수출이 가시화되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ADMS 등 전사에 확대 적용하였고, 올해는 LGU+와 협업을 통하여 태양광발전량 예측시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신수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분야에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디지털전환실의 활약을 기대한다.



사외 디지털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담당팀

전사의 디지털전환 기반을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전호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 실장

디지털전환실 사우들에게 디지털전환이란?

- 한혜민 : 전기는 한전이, 데이터는 우리가 흐르게 한다.
- 이재현 :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혁신, 새로운 고객 경험, 신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전반의 과정이다.
- 박길현 : 에스컬레이터와 같다. 나는 가만히 서 있지만 열심히 움직여 나를 올려 주는 숨은 힘이다.
- 서호진 : 디지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중 하나다. 디지털전환을 통해 우리의 업무처리 방식이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고객에게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조직 전체에는 혁신의 속도를 더해 줄 수 있다.
- 정진교 : 코딩 없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에 데이터처리와 모델을 손쉽게 개발한다.
- 최윤석 : 거대한 필요는 없다. 디지털전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 김원영 : 아날로그적인 불편한 삶을 해결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주윤희 :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 장승익 : 본사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나의 유일한 부서다.
- 정재호 : 파도 속 조각배와 같다.

에너지소비 풍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탄소의 배출을 막기 위해 에너지산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추세고, AI 등 첨단산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에너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전력망이다.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맞추려면 발전된 전기를 수송하는 전력망이 꼭 필요한데 극심한 민원에 막혀 전력망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이다.

Text 편집실 Reference 송변전건설단

ELECTROMAGNETIC FIELD

전자파 괴담,
진실 또는 거짓?!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논란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 직류송전(HVDC)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불허했다.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방침이다.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 변전소 부지 내에서 외부에 노출돼 있던 전력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여유부지에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HVDC는 교류전력(AC)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적고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설비 전자파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전자파 논란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덴버지역에서 소아암과 전력선 자계 노출 관련 연구결과 '송전선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국제보건기구(WHO)는 세계 54개국 및 8개 국제기구와 1996~2007년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전자파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일관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자계)을 2B로 분류했다. 2B는 발암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있을 수도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2B그룹에는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RF전자파가 포함된다. 반면에 이보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그룹인 2A엔 붉은 살코기, 튀김 연기,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석유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1998년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60Hz의 경우, 83.3μT(마이크로테슬라¹⁾)이다. 이후 WHO의 2007년 국제공동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200μT로 완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수적으로 2004년 발표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2019년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종전 기준인 83.3μT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설비가 방출하는 전자파는 국내기준 2% 이내, 국제기준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바로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평균)는 1.27μT, 100m 거리는 0.2μT 수준이다.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그룹 분류표

그룹		사람에 대한 발암성	요인(Agent)
Group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129종) 술, 담배연기, 가공육, 석면, 비소, 벤젠 등
Group2	A	사람에게 발암성을 추정 가능한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96종) 붉은육, 튀김연기, 뜨거운 음료(65℃), 석유 등
	B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치 않은 경우)	(321종)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극저주파자계, RF전자파
Group3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	(499종) 커피*, 염소처리 음용수, 형광, 극저주파전계 등

* 커피는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하여 2016년부터 2B → 3등급으로 변경됨

1) μT(마이크로테슬라): T(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μT는 백만분의 1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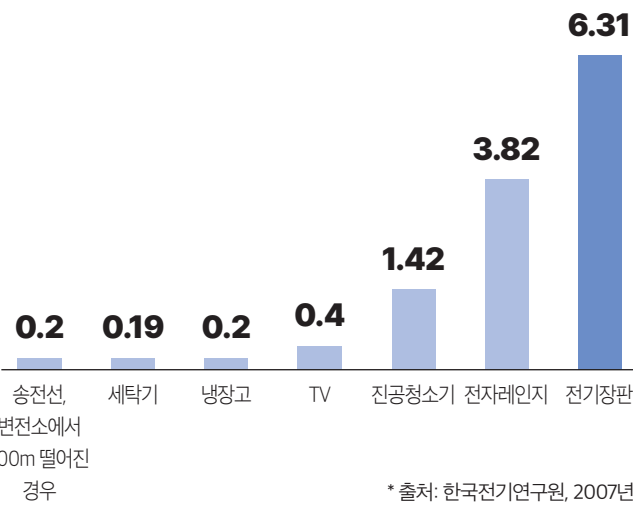
전자파, 거리 멀수록 영향도 급격히 낮아져

전자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설비 전자파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한다. 전력설비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100m 이상 뒀을 때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의 강도의 영향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전자계 측정결과치를 살펴보면 송전선, 변전소에서 100m 떨어질 경우 전자파의 세기는 0.2μT에 불과했으며 이는 냉장고 0.2μT, TV 0.4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의 일상 가전제품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자계 측정치 비교

(단위: μT)



변전소 부지에 거주하는 한전 직원과 가족들

실제로 많은 변전소 부지에 사택을 짓고 한전 직원과 그 가족들이 무탈하게 거주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54kV 화양변전소에는 2006년부터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둔지변전소에도 16세대가 살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변전소 위의 사택은 2007년 건립되어 1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한전인들이 거주하는 한전생활관도 변전소 시설이 바로 인근에 자리한다.

전자파 과담으로 인한 민원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과담’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괴상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가 결합될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다.



우수 디자인으로 설계된 주민친화형 복합변전소. 서울 마포구(345kV 중부변전소)

이 같은 맥락에서 전자파 논란도 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론을 이끌어 전력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의 사례와 같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 발전제약이 불가피하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이 지연되면 매년 3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 민원사태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통상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준공 시기가 2028년 12월까지 늦어질 경우 총 7500억 원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국민의 전자파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한전의 노력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괴담이 아닌 보다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소통 노력을 한전은 지속하고 있다.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자파 교육, 전자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하남) 전자파 측정결과

지점	측정 위치	전자파 측정치(μT)	국내기준 대비	국제기준 대비
①	변전소 보안울타리 인근 도로	0.03	0.04%	0.02%
②	변전소 보안울타리 인근	0.13	0.16%	0.07%
③	인근 아파트 놀이터	0.02	0.02%	0.01%
④	인근 상가 입구	0.17	0.2%	0.09%

* 출처: 한전 전력연구원, 2024년 7월

송전선로

35,856^{C-km}35,596^{C-km}

2023

35,856^{C-km}

2024

송전철탑

42,770^기42,664^기

2023

42,770^기

2024

변전소

925^개900^개

2023

925^개

2024

빛의 길, 전국을 잇다

Reference 한전 송변전운영처

겨울을 온기로 태우고 여름을 빛으로 치환하는 에너지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일으키는 동력이다.
 이 에너지를 전국 구석구석에 전달하기 위해 한전은 35,856C-km에
 달하는 송전선로, 42,770기의 송전철탑과 925개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전력을 고객에게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
 한전은 전력 설비 보강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한전의 전력망 이슈와 과제

전기는 물, 공기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물, 공기처럼 자연 상태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고, 만들어진 전기는 누군가에 의해 우리가 사용하는 곳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전기를 만들어 내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이용해 대규모, 대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했다면 이제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소규모, 소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그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Text 이성학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 실장



남는 전기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필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전력망 확충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왜 전력망 확충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관한 가장 최신 계획은 2023년 1월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6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약 19% 증가한 118GW로 전망되는 반면,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약 61%가 증가한 239GW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는 피크기여도가 태양광 13.9%, 풍력 2.2%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원자력, LNG의 피크기여도는 100%, 석탄은 약 99%)

전력시스템 인프라는 동시에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대전력에 맞춰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같은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타 전원 대비 훨씬 많은 양의 발전을 설치해야 하고 그 모든 발전기는 전력망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동시에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 내면 수요를 초과해 과잉 생산된 전기를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전력망이 필요하다. 이때 전력망이 부족하면 과잉 생산된 전기는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출력제어이다.

그렇다고 과잉 생산된 전기를 버리는 것이 아까우니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 용량에 맞춰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적게 만들어 낼 때는 전력망의 이용률이 낮아져 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차 설비계획은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 용량의 70%가 동시에 발전하는 경우를 고려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실제 동시 발전량이 설치용량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과잉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버려지는 전기의 비율이 해당 발전기가 1년간 발전할 수 있는 총 발전량의 약 3%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수요를 이전하면 전력망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필요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기존 발전기와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이야기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전기를 소비해야 한다는 '지산지소(地產地消)'는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임에 틀림이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과잉 또는 과소 생산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가 과잉 생산될 때는 타 지역으로 전기를 수송하고 반대로 과소 생산할 때는 타 지역에서 전기를 수송받을 수 있는 전력망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전기, 불편한 전력설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전력망 확충이 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누구도 전력설비가 내 토지에 또는 우리 마을에 설치되는 것을 흔쾌히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가 귀했던 과거에는 전력설비를 고마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함과 다소의 피해가 있더라도 전력설비가 건설되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아무런 불편 없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전력설비가 우리 마을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설비를

전력망 대체 기술(NWAs: Non-Wire Alternatives)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주는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되지만 전력설비가 설치된다고 하면 반대로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 없이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들의 선의와 희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전력설비 건설 반대와 지중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둘째, 주민들의 건강권 즉,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설비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전력설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낮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0’이 아닌 이상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면서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전의 노력들이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주민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 이에 우리 회사는 2024년 11월 국립과천과학관과 MOU를 맺고 앞으로 과학관이 앞장서서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에는 보건·의료 분야와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전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전력망의 적기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전력설비 건설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과정인 만큼 미래의 전력망 이슈를 모두 전력망 확충으로 해결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전력망 확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NWAs(Non-Wire Alternatives)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NWAs는 전력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기술들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지역별 수급을 균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간적으로도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균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NWAs의 대표 기술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수발전을 도입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전기에너지를 높은 곳에 위치한 물의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했다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이것을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력망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여유가 있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되면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물의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전통적인 방법(양수발전), 질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법(플라이휠, 관성에너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에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방법, 수소와 같은 가스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해서 우리의 전기에너지 생태계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유연송전시스템(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과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이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기 전쟁에서 테슬라의 교류전기(AC)가 승리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교류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것은 교류전기가 먼 거리에 전기를 보내는 데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교류전기는 비교적 간단한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었고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수송하면 동일한 에너지를 보내는 데 손실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직류전기(DC)보다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류전기는 전기의 흐름을 마음먹은 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교류전기 시스템에서는 장기적으로 발전기와 수요의 양과 위치를 전망하고, 그 전망에 따라 미리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인 전력망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직류전기도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전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차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전이 이룬
전력망 건설 성과

2024년에는 전력망 확충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들이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전력설비 건설 역사상 최장기간이 소요된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준공**이다.

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당진시 등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화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2001년 제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계획되었다. 하지만 지자체(당진시)와 지역주민의 송전선로 건설반대로 사업이 장기 간 지연되었고 결국에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송전선로 상당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하여 건설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당진지역에서 추진되고 후속사업인 345kV 당진 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대부분의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는 송전탑 방식에 비해 약 10배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선로에 있어서는 일정규모 이상 지중화가 불가능한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978MW에 달하는 대규모 계통안정화용 배터리 ESS사업의 준공**이다.

한전이 이미 2016년부터 세계 최초로 376MW 규모의 주파수조정용 ES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다. 주파수조정용 ESS 사업은 발전기나 송전선로 고장 시 주파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발전기를 최고 출력보다 낮게 운전하던 방식을 대체함으로써 발전원가가 낮은 발전기의 이용률을 높이고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던 사업이다.

초기 ESS 사업의 잦은 화재 발생으로 후속사업이 추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지난해 준공한 계통안정화용 ESS 사업은 전력망 부족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여 해당 발전기의 발전제약을 줄임으로써 우리 회사의 전력구입비 상승 요인을 일부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 번째, **안도와 제주를 잇는 #3 HVDC 연계선 사업의 준공**이다.

1998년 전남 해남군과 제주시를 잇는 #1 HVDC 연계선 사업, 2013년 진도와 제주도를 잇는 #2 HVDC 연계선 사업이 준공되면서 육지의 원자력과 석탄 등 발전원이 낮은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제주도로 송전하여 제주도의 비싼 발전기의 가동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3 연계선 사업은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 과잉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전력망 확충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총 72건의 전력망 사업을 준공하여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건설 직원들의 저력을 보여 주고 있다.

2024년 우리 회사는 제주, 호남, 동해안지역의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송배전망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 기간과 전력망을 확충하는 기간의 불일치에 기인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되고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다.

이에 한전은 2023년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제적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0차 설비계획 이전에 수립된 345kV 이상 주요 전력망 사업이 총 3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10차 설비계획을 통해 신규로 수립



된 사업만 2배에 가까운 57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차 설비계획에 따른 전력망 투자비 전망치도 9차 대비 약 2배 수준인 56.5조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전력망 이슈와 과제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금은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수용성이 매우 낮아 이를 극복하고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작업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력설비의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의에 의존해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력망 확충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전은 전력망 건설에 전사적인 역량을 총 결집하여 안정적인 미래 전력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래 전력망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역량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2023년 5월 수립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은 물론 조만간 수립될 11차 설비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전력망 확충에 전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시키는 것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질 최대 현안 과제가 될 것이다.

2025년 현재 전력망
현황과 과제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도전’

Text 편집실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단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도달하는 듯한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시도와 뜻은 비슷한데도 유달리 사람을 벅차 오르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장한 표정으로 크게 “도전!”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 뒤에는 ‘성공’이나 ‘실패’ 같은 단어가 짝꿍처럼 따라붙습니다.

앞서 말했듯 도전은 시도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도전이라는 낱말 뒤에 ‘실패’가 이어져도 재도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라는 극적인 두 단어와 자주 어울리는 탓인지 ‘도전 실패’라는 말이 주는 좌절감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의 도전에 대한 실패일 뿐, 그들 인생의 실패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에 도전하고, 학교 숙제를 해내는 것에 도전합니다. 하다못해 알람을 듣고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건 이미 수많은 도전에서 몇 번이고 성공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도전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사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울본부 직원들의
'몸으로 말해요'**

동료들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대화가 통하는 경우가 있다. 한 사무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소통을 하기에 알아서 척척 호흡이 저절로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1월의 어느 날, 서울본부 경영지원부와 배전운영부가 팀워크 만점에 도전했다.

Text 허승희 Photo 황지현 Video 신현균

경영지원부
노무팀 박서영 대리
이규현 대리
총무팀 박경진 대리
최수진 주임



배전운영부
설비보강팀 윤형모 대리
운영계획팀 송영준 대리
배전보수팀 조성천 대리
홍민기 대리



게릴라 이벤트가 떴다

MZ 세대의 성지로 불리는 을지로입구역 앞. 대한민국 빛의 역사를 가진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가 위치한다. 서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다. 서울본부의 경영지원부와 배전운영부가 첫 게릴라 이벤트의 주인공들이다. 설 연휴를 앞둔 시즌이라 모두 바쁠 텐데도 첫 게릴라 이벤트라고 하니 다들 시간을 내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한 적이 있기에 직원들도 쉽게 게임 방법을 이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직원들은 하나둘씩 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저는 뒤통수가 예쁘니까 참고해 주세요.” 총무팀 박경진 대리는 사진 촬영이 부담스러운지 강당으로 들어서며 능청스럽게 한마디했다.

배전운영부의 네 사람은 모두 조용하게 입장해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벤트 참여하게 되셨냐고 물으니 “사다리 타기로 정했습니다.” 건조한 송영준 대리의 대답이 돌아왔다. 소중한 업무 시간을 빌려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후회 없도록 재밌게 즐겨야만 한다.

두 팀의 숨 막히는 신경전

게임의 룰은 간단하다. 각 부서는 문제 주제를 뽑고, 서로가 뽑은 주제에 대해 문제를 출제한다. 총 20문제 중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답을 맞힌 팀이 승리! 각 팀은 서로 의견을 모아 주제를 뽑았다. 경영지원부는 ‘동물’을, 배전운영부는 ‘운동’을 뽑았다. 문제 출제 시간이 주어지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시작했다.

시끌벅적한 경영지원부의 상황을 먼저 엿보았다. “진짜 이런 걸 해도 돼?” 최수진 주임이 문제의 난이도를 보고 의문을 가졌다. “이왕 하는 거 이겨야지. 골프는 너무 쉬워서 안 돼.” 이규현 대리가 단호하게 말하며 ‘자이로토닉’을 스케치북에 썼다. 자이로토닉이라니. 생전 처음 보는 단어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더니 배우 송혜교 운동으로 소문난 운동이란다. 무자비한 문제 난이도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배전운영부가 조금 안쓰럽게 보였다.

배전운영부의 상황은 어떨까. 가자마자 보인 글자는 ‘핑’. 조용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를 내고 있나 궁금했는데 소리 없이 승부욕에 불타오르고 있는 듯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조성천 대리가 “이건 너무 양심 없나요?”라며 눈치를 봤다.



게릴라 이벤트
술직 후기



경영지원부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좋고요. 바쁜 시기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이제 얼른 일하러 가 볼게요!



배전운영부

간발의 차이로 져서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얻은 상품으로 참여한 직원들과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쁜 일상 속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

게임은 배전운영부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SNPE’. 송영준 대리는 황당한 듯 급히 “패스”를 외쳤다. 첫 문제부터 난관이라니. 두 팀의 승부 결과가 더욱 궁금해졌다. 윤형모 대리는 자신의 차례에 ‘발레’가 나오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다. 발끝을 세우고 두 팔로 원을 그려 방글방글 도는 모습에 모두 웃음보가 터졌다. 조성천 대리는 초면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미어캣으로 빙의해 고개를 번쩍 들어 스케치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홍민기 대리는 크로스핏 설명을 하며 손으로 십자가를 그렸는데 설명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오히려 팀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다음은 경영지원부 차례. 박경진 대리의 얼룩말 설명부터 경영지원부의 게임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흰수염 고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규현 대리는 손으로 턱을 열심히 쓸어내리면서 설명했는데 영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최수진 주임에게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냉큼 정답을 맞혔다. 박서영 대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재미할기를 설명할 때는 배전운영부에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결과는 한 문제 차이로 경영지원부의 승리! 처음 모였을 때의 그 어색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진심으로 결과에 기뻐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잠깐이었지만 같은 부서의 팀원들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소중한 경험처럼 느껴졌다. 이번 게릴라 이벤트를 계기로 더욱 돈독해졌을 서울본부 직원들. 이들의 멋진 팀워크로 언제나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도전이라는 글자는 뭔가 웅장한 듯한데 SNS 챌린지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SNS를 가득 메운 챌린지는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까?

Text 편집실



두려웠던
도전이
즐거워진다

SNS 챌린지 문화



챌린지, 넌 어디서 왔니?

1990년대 이후 초고속으로 발달한 인터넷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중에서도 SNS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기능이 됐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던 친구와의 교류나 인간 관계 맺기 등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국가, 다른 인종의 친구도 사귄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친구를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은 SNS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였다. 호기심은 곧 호감으로 이어졌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사귄다. SNS 계정을 공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SNS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낸다. 챌린지 문화는 이런 SNS 특성이 적절히 조화된 인터넷 세대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챌린지 문화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챌린지 문화는 유래가 깊다. 예전에는 '챌린지'라는 단어 대신 인증 사진, 혹은 인증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SNS 챌린지는 소셜 네트워크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다. 해시태그를 타고 게시글을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간다. 사진이나 영상 하나를 올릴 때도 신중하게 해시태그를 작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요즘 가장 뜨거운 틱톡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진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지루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놀이를 하는 등 새로운 재미를 찾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계속 해서 길어지자 SNS 접속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찍어 업로드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 중 하나로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있다.

아, 너두 챌린지 할 수 있어

챌린지를 떠올리면 K팝 챌린지나 몸을 따라 하는 재미있는 영상이 먼저 연상되지만 사실 무엇이든 챌린지가 될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 독서, 공부 등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인 '폴로깅 챌린지',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하기' 등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들도 일종의 챌린지가 된다. 그렇기에 SNS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다양한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다. 어르신이라면 '약 제때 챙겨 먹기 챌린지'를 어린이라면 '편식하지 않기 챌린지' 정도가 될 듯하다.

하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즐길 힘만 있으면 누구든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다. SNS를 잘 다루는 손주, 손녀와 함께 댄스 챌린지를 추는 어르신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챌린지 문화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는 중이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챌린지'에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다. 내일도 모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힘. SNS 챌린지는 우리가 어려워하던 '도전'을 부담 없이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는 '놀이 문화'처럼 느끼게 만들어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세상을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다만 SNS의 특성상 공유 수와 좋아요 수로 인기를 체감할 수 있기에 관심을 얻고자 위험하거나 무리한 챌린지를 시도하는 경향도 있어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자고 일어나면 다양한 해시태그를 단 챌린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저 즐겁기만 한 챌린지도 좋고, 당신을 성장시킬 챌린지도 좋다. 무엇이든 좋으니 과감하게 도전하자.

CHALLENGE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하는 앱

올해는 독서왕 도전 '북적북적'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른다. “책 좀 읽어라”라는 부모님의 말은 그렇게도 듣기가 싫었는데, 이젠 그 소리가 없어도 저절로 책을 찾아 읽게 된 사람들이다. 오랜만에 독서를 하려고 보니 작은 글씨들이 흰 종이 위를 동동 떠다니는 것만 같고 글자에 집중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럴 땐 독서 기록 앱 ‘북적북적’을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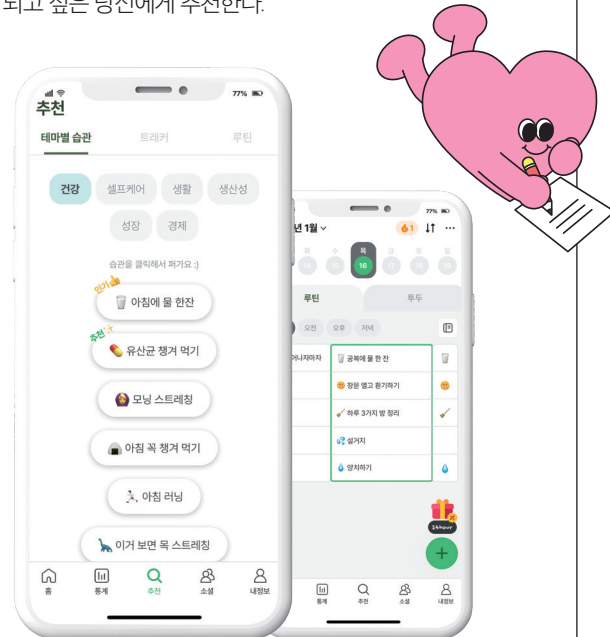
조금씩 늘어 가는 독서 진행률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완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책을 다 읽으면 귀여운 책 모양 그림이 하나씩 쌓이는데 점점 높아지는 책더미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책이 쌓인 높이와 비슷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나만의 캐릭터로 설정하고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어쩌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독서에 재미 요소를 더해 자꾸만 책을 읽게 만드는 앱이다.



P 성향도 J가 된다 '마이루틴'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신이 미워진 적이 있다면 '마이루틴'을 잘 기억하자. 습관은 오래도록 반복된 행위가 저절로 몸에 익은 것을 말한다. 외출 후 손 씻기나 식사 후 양치 등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되어 버린 것처럼 말이다. 어릴 적부터 집,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은 주변 어른들에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되었겠지만,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작은 습관들을 기록하는 '마이루틴'을 사용하면 '어른'들도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수월하다. 인간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나빠서 아침에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도 오후가 되면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정해 두고 하루하루 목표 달성 표시를 늘려갈 때면 이전보다 더 계획적이고 꼼꼼한 '갓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즉흥적인 P 성향이지만 이제는 계획형 인간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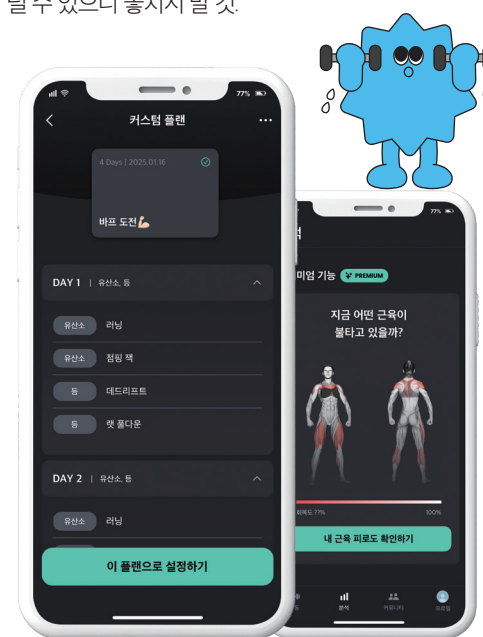
영화 속 주인공 결엔 늘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무언가 도전하고 싶을 때 혼자서 해내기 어려웠다면 나만의 조력자가 되어 줄 똑똑한 앱을 이용해 보자. 어쩌면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Text 편집실

운동도 똑똑하게 '플랜핏'

건강하게 살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평소에 안하던 운동을 하려다 보니 엉성한 자세로 운동하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해서 오히려 더 골골대는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다. 나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운동했다가 운동에 재미를 느끼기는커녕 금방 포기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움은 받고 싶는데 헬스장에서 하는 퍼스널 트레이닝은 비싼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똑똑한 운동 앱 '플랜핏'을 활용하자.

당신의 하루 루틴과 운동하고 싶은 부위, 성향 등을 세세하게 파악해 운동 방법과 횟수까지 모두 안내해 주고, AI 운동 코치에게 조언을 구하고 답변을 얻을 수도 있다. 온전히 1:1 맞춤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하는 몸을 정확히 설정하고 성실히 운동하기만 하면 금세 멋진 몸이 완성된다. 게다가 앱 하나에서 인바디 기록, 운동 영상 및 가이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놓치지 말 것.



KEPCO TIP!



스크래치 습관 복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와의 약속은 자꾸만 어기게 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늘 너그럽던 사람이라도 나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는 습관 복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습관 복권 이용법은 간단하다. 나만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언가 실천했다면 복권의 스크래치를 긁어 주면 된다. 중요한 건 양심 있게 복권을 긁어야 한다는 것. 설정했던 기간 내에 할당량을 모두 채웠다면 고생한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좋은 습관 형성에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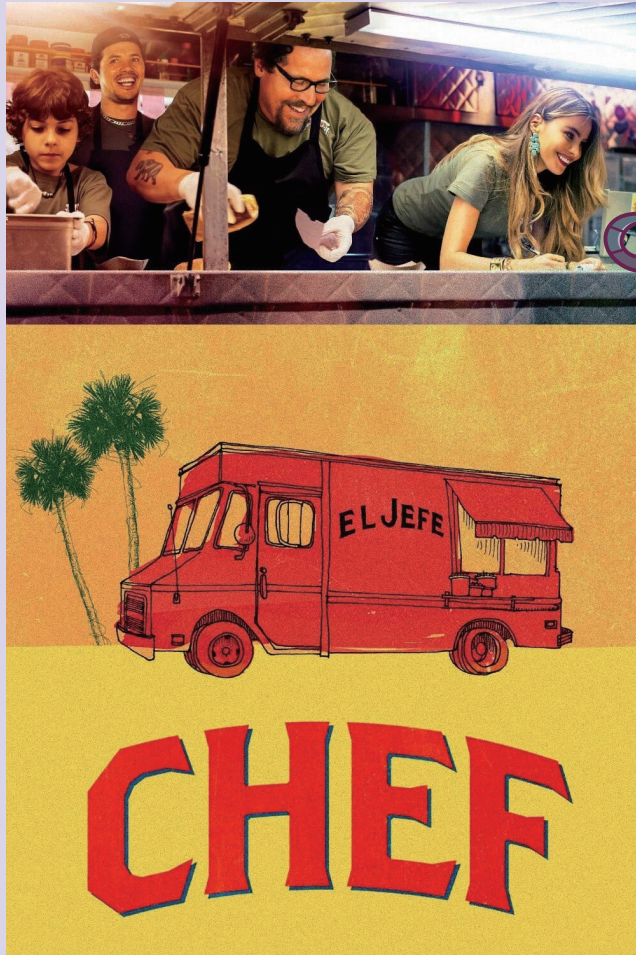
인공지능 알람시계

드라마 속 주인공은 매일 아침 상쾌한 표정으로 일어나 환기도 시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나는 그게 왜 안 될까? 그럴 땐 똑똑한 인공지능 알람시계를 사용해 보자. 스마트폰과 연동해 나의 수면 패턴을 파악해 알람을 맞춰 준다. 수면 계획은 물론 운동량 등도 파악해 주는 운동 알람 기능도 탑재돼 있다. 연동된 앱에 등록된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작동하니 맞춤형 비서인 셈이다.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반영해서 안내하는 똑똑한 알람시계라면 당신의 상쾌한 아침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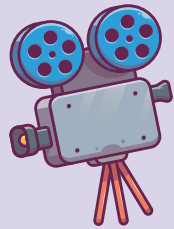


자기계발 일력

사람들이 각성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직접 어떤 일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다짐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등 여러 계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간편한 방법에는 글이나 문장을 읽는 것이 있다. 아주 짧은 문장이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삶의 원동력으로 삼기 충분하다. 자기계발 일력은 이런 점을 이용해 글의 힘으로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매일 새로운 문장을 읽고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더 소중히 사용할지 고민하며 보람찬 한 해를 만들어 가자.



<아메리칸 셰프>
감독 존 파브로
개봉일 2015년 1월 8일
상영시간 114분



도전하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이대로 삶을 포기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서 칼(주인공)은 후자를 택했다.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그는 우리에게 잠자고 있던 도전정신을 깨운다.

Text 정덕현 칼럼니스트

도전을 멈춘 순간 찾아온 위기

5년째 같은 메뉴지만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레스토랑. 마침 까다롭고 영향력 있는 요리 비평가 램지 미첼이 방문한다고 하자, 칼 캐스퍼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려 한다. 하지만 이 레스토랑의 사장은 생각이 다르다. 그는 잘 팔리는 메뉴 그대로 내놓는 게 낫다며 '예술가' 행세하려 하지 말라고 칼의 의견을 묵살한다. 요리 매거진들은 여전히 칼의 요리를 찬양하고, 레스토랑은 성업 중인 안정된 상황. 언뜻 보면 사장의 '경영적인 선택'을 따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요리사로서의 자부심과 최고를 추구하는 칼에게도 그 선택이 최선일까. 영화 <아메리칸 셰프>는 바로 이 문제적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장의 선택을 따른 칼은 길거리에서 음악에 맞춰 조종하는 대로 춤을 추는 해골 모양의 꼭두각시를 마치 자신의 모습이라도 되는 양 명

하니 바라본다. 하지만 꼭두각시 같은 자신의 선택은 칼의 명성에 치명타로 되돌아온다. '자신감 없는 할머니처럼 변했다'라는 램지의 신랄한 비판에 자존심이 상한 칼은 개인 메시지인 줄 알고 욕설이 담긴 트윗을 날렸다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

요리만 할 줄 알지 X(옛 트위터) 같은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던 칼은 감정에 휩싸여 공개적으로 재결투를 신청하지만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장 때문에 대결이 두려워 도망친 겁쟁이 취급을 받는다. 직장도 명예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된 것. 결국 칼의 위기는 자신이 왜 요리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저 바쁘게 살아온 관성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 팔리는 요리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장의 목표일 뿐, 칼의 목표가 아니다. 그렇다면 애초 생각이 다른 사장을 벗어나 자기가 하고픈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도전을 해야만 했다. 그 앞에서 머뭇거린 대가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도전에 대한 초심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

하지만 길이 끝나는 데서 다시 길이 시작된다고 했던가. 칼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이혼한 전처의 제안으로 아들과 함께 떠난 가족 여행에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낡은 푸드트럭을 아들과 함께 하나하나 손보고 마침 레스토랑 동료였던 마틴이 합류하면서 완벽한 3인조 팀워크가 완성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잃었다 생각했던 그 순간, 칼은 누구의 간섭 없이 자신이 하고픈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복을 되찾게 된다.

'빈속으로 절대 보지 말 것' 포스터의 문구처럼 <아메리칸 셰프>는 식욕을 자극하는 요리들이 먼저 시선을 잡아끄는 영화지만 그 요리의 맛을 넘어서 인생의 맛이 느껴지는 영화다. 영화는 질문한다. 과연 당신은 애초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가. 푸드트럭 설비를 도와준 인부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 때, 무료로 주는 것이니 조금 탄 샌드위치도 괜찮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칼은 자신이 왜 요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 말해 준다. "요리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나도 거기서 힘을 얻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칼의 초심이었다.

칼은 그간 소원했던 아들과 함께 여행하고 만들고 싶은 요리를 만들며 그 요리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 레스토랑이 아닌 푸드트럭을 선택하고 도전함으로써 얻게 된 행복이다. 게다가 아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X를 통해 퍼져나가고 이로써 푸드트럭이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칼은 변화하는 세상에도 적응해 간다. 디지털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데 영 서툴렀던 캐스퍼는 그렇게 아들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도전에 열정적으로 뛰어들 때 비로소 그 길은 열린다.

문화 한 스푼!

☐ 도서



<인생 수업>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다양한 삶을 통해 배우는 인생.



<도전>
저자 크리스 보닝턴
인간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도전의 역사다

🎬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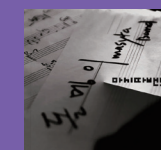


<록카>
감독 존 길버트 아빌드센
개봉한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OST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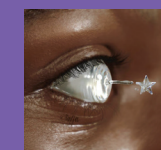


<슬럼독 밀리어네어>
감독 댄니 보일
도전하는 자에게는 알게 모르게
운들이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린
도전해야 한다.

🎧 음악



<돌멩이>
아티스트 마시파 밴드
구르며 흩이 될지언정, 새처럼 날고
싶다는 집념으로 굴러가겠다는
돌멩이의 말이 인상 깊다.



<Star Walkin'>
아티스트 Lil Nas X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명언을 남긴 프로게이머의 우승
도전기를 담은 곡이다.

KEPCO NEWS

2025. 0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DSO-MD 제주센터 개소

한전은 1월 9일 제주본부에서 DSO-MD¹⁾ 제주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DSO-MD 제주센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보다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찰 가능용량 등 정보를 제공하여 배전망 내 전력거래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범사업(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이 진행되고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데 날씨, 설비 공사, 고장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

DSO-MD 제주센터는 분산에너지사업자들과 제어 및 통신설비를 연결하여, 사업자들의 전력시장 입찰계획을 사전에 검증하여 발전이 가능한 범위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전은 DSO-MD 제주센터와 배전망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인 LG에너지솔루션의 VPP 플랫폼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 지원과 더불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배전선로의 피크부하 저감을 통한 전력망 비증설투자대안(NWAs²⁾)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갑골 하우스 난방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밤 시간대(22~04시)에 ESS 방전을 통해 전력 과부하를 해소하고 약 16억 원의 전력망 보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폭설에 따른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CEO 긴급 전력수급 상황점검 시행

김동철 사장은 1월 13일, 최근 한파와 폭설에 따른 안정적 전력수급 및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의 운영현황을 살피기 위해, 본사 수요효율처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방문해 전력수급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신운섭 수요효율처장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4년 12월 9일~2025년 2월 21일, 11주) 중 상황실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전력수급 비상 대비 준비사항을 브리핑했다. 또한, 지난주 폭설과 한파로 인해 이번 겨울철 최대 피크를 기록했으나, 전력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었으며, 남은 동계기간 동안에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보고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점검현장에서 “폭설과 한파로 해빙 시, 설비고장 및 안전사고의 우려, 준비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수급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근무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대재해 근절 위한 전력계통본부

안전다짐 대토론회 시행

전력계통본부는 1월 8일 본사 비전홀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력계통본부 안전다짐 대토론회를 시행했다.

안전다짐 대토론회는 전력계통본부장, 전국 건설본부장, 전력관리처장, 건설 및 전력지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다짐 선서를 시작으로 2024년 산업재해 Review 및 2025년 중점추진사항, 안전사고 근절 TF 주요 추진결과, 안전처 주요 업무추진사항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근절과 음영개소 제거 등 안전관



련 시스템, 제도, 대책과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해 각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방안 및 의견을 공유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 송변전운영처는 이번 안전다짐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설 명절맞이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시행

설 명절을 맞아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이 1월 21일 전라남도 나주 소재 ‘행복의 집’과 ‘노안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행복의 집(노인요양시설)과 노안지역아동센터는 기부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대접하고,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 외 나주시에서 추천받은 4개 사회복지시설(요안나의 집, 도울실버타운, 나주실버케어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에도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했다.

또한, 한전은 1월 9일~31일 기간을 ‘설 명절 집중 봉사활동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의 303개 한전 사회봉사단이 도시락 전달, 생필품 기부, 음식배급 봉사 등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명절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편 한전은 지난 12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이하여 겨울철 지역주민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16개소의 노후 소파를 교체하고 공유냉장고에 식료품과 생필

품을 기부하는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전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안중은 상임이사 선임

한전은 1월 6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은 1992년 한전에 입사하여 대구본부 포항지사장, 노사협력처장, 비서실장, 상생협력본부장, 경영관리부사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안중은 경영관리본부장은 조직·인사관리, 정책조정 및 노사관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전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글로벌 원전시장

협력 강화 약속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1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사장은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 **M**arket & **D**ispatch: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분산에너지를 배전망운영자(DSO)가 관제하여 안정적으로 배전망을 관리하고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2) **N**on-**W**ires **A**lternatives: 전력망 과부하가 발생하는 지역에 전력망 확충 대신 분산에너지의 출력조정 및 충·방전 등 유연성을 활용해 과부하를 억제하여 전력망 확충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기술

〈KEPCO〉 N행시

2월호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지어 보세요.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월의 주제 ‘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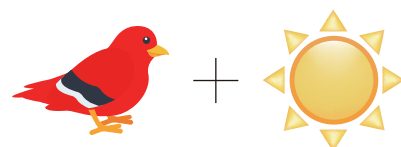
N행시 예시
초심을 잃지 않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수 마감 2월 20일(목)까지
이벤트 상품 커피 기프트콘 2만원권
선물발송일 3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지난호 정답



새

해

1월호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김*경(1595)	김*환(0904)	윤*민(3090)	이*홍(3582)	주*미(8458)
김*무(4218)	민*현(3851)	윤*숙(6862)	임*희(6624)	진*옥(6998)
김*수(2510)	박*성(0225)	아*권(1820)	장*진(0324)	최*(8283)
김*애(1209)	박*환(7216)	아*영(2853)	정*선(6078)	한*직(1727)
김*웅(1173)	석*수(0718)	아*진(3559)	정*철(0733)	황*성(6077)
김*환(0554)	안*수(8469)	아*현(0923)	조*성(3350)	황*훈(0113)

KEPCO

2025
February
vol.620

통권
등록번호
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620호 2025년 2월호(월간)
나주 마00003
2025년 2월 10일
김동철
백수현

편집
주소
기획·디자인
인쇄
창간일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이팝
(주)대유기획인쇄
1961년 8월 31일



마포구 중부변전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가상이미지입니다

변전소로 놀러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변전소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변전시설은 옥내화 및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생활의 중심이 될 새로운 변전소를 기대해 주세요.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 변전소 산책로,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강아지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변전소

